

고려중기 慧照國師의 對北宋 交流와 轉輪藏 도입

이 경 미

(서울시 문화재위원)

주제어 : 법보신앙, 전륜장, 혜소국사, 불교건축, 북송교류

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천 용문사의 운장대 2좌는 法寶信仰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힌다. 輪藏, 轉輪藏, 轉輪大藏 등으로도 불리는 이 시설물은 경전을 안치하는 서가의 일종이지만 이름에 나타난 대로 회전하는 특수기능을 지녔다. 보통 南朝 梁나라 傅翕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전륜장은 이것을 한 바퀴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효과를 얻는다는 신이한 기능으로 인해 동아시아 불교신자들에게 널리 애용되었던 法具라 할 수 있다.

법보신앙은 『大藏經』으로 극성을 이루었는데 『대장경』 편집은 이미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불교성전 총서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寫經 위주였던 경전 인쇄는 점차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런 분위기는 고려에도 고스란히 유입되어 고려전기 사찰에는 經樓에서 大藏殿으로의 공간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경루가 보관기능 위주였고, 가람배치에

있어서 중심 불전보다는 위상이 낮았다면 고려전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대장전은 예배공간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배치 역시 주불전에 버금가는 자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¹⁾ 대장전 내부에 경전을 안치하는 書架方式은 크게 고정식과 회전식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回轉書架인 전륜장은 북송에 들어서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남송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전륜장을 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유입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글을 출발하였다.

고려전기부터 『초조대장경』을 조성하면서 이를 보관할 대장전을 여러 사찰에 건축하고 있으나 내부 서가방식을 기술한 사료는 거의 없어 전륜장에 관한 문제는 밝혀내기 어렵다. 그 실마리는 유일하게 윤장을 갖추고 있는 용문사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龍門寺重修記」에는 다행스럽게도 고려 예종 때

1) 이에 관해서는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사를 지낸 慧照國師(생몰년 미상)와 직결된 祖膺이란 법맥이 드러나 있다.²⁾

여송관계를 담당한 많은 인물들이 사료에 등장하지만 실제 건축의 조류를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이에 관한 연구 역시 두드러진 결과가 없었다. 그런데 혜소는 大覺國師 義天보다 앞서 북송에서 유학하였고, 의천과 동행하여 강남지방의 여러 사찰을 순력하였으며, 또한 송에서 遼本 『大藏經』 3부를 들여왔다. 이런 그의 활동영역을 생각할 때 당시 북송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전륜장을 실견하고 이를 고려로 들여왔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즉, 혜소국사는 입송을 통해 북송 불교건축의 신경향이었던 전륜장을 보았고 이를 고려에 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전륜장 시설과 관련한 건물지와 사료에서도 혜소라는 공통분모가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풀어가면서 혜소의 전륜장 도입과 이후 고려중기의 수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시대 經藏建築의 일면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고려중기 麗宋 交流와 慧照國師 曇眞의 역할

2-1. 고려중기 麗宋 교류와 義天의 入宋求法

고려중기에 들어 麗宋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는 50여 년간 단절되어 있던 외교관계를 회복한 일이었다. 顯宗代 이래 공식 교류를 중단했던 송과의 관계는 1071년(문종 25) 사신을 송에 파견함으로써 재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외교관계의 변화에는 당시의 국제정세가

작용하였는데 송의 神宗은 거란에 대항하기 위해 고려와 제휴하려는 聯麗對遼策을 펴나가고 있었고, 여송간의 단교를 강요해왔던 거란은 종실 내부의 반란 등 정치의 혼란으로 국력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³⁾ 이와 같은 국제정세는 양국의 국교재개에 일면 기여하였지만 고려 역시 여송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재개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떤 이유로 여송간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을까. 통상 재개이유는 다양하지만 조공무역을 통한 이익창출과 송의 선진문물 수입이란 면에서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⁴⁾

여송관계는 사신에 의한 공식외교를 필두로 추진되었으나 가장 두드러진 활약은 상인들의 몫이었지만 실제 양국을 오간 사람들은 목적만큼 계층도 다양하였다. 양국 교류에 공헌한 매개자 가운데 義天(1055~1101)의 활동은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의천의 입송동기는 승려라는 본연의 신분엔 걸맞는 佛敎에 대한 求法問道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1085년(선종 2)에 입송하여 14개월간의 체재기간 동안 명산과 승경, 그리고 聖跡이 있는 곳에는 참배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러는 동안 친견하여 법요를 청문한 고승이 50여명이나 되었다.⁵⁾ 의천이 巡歷한 사찰들은 현재 절강성, 강서성, 안휘성,

3) 정수아, 「高麗中期 對宋外交의 再開와 그 意義」,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150~151쪽.

4)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4, 247~248쪽.

5) 「靈通寺大覺國師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이외 대각국사의 비문인 「偃鳳寺大覺國師碑」에는 “密州에서 京師에 이르기까지 一法을 알거나, 一行을 가지는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두루 찾아가서 忖問하였으며 또한 固請하여 제자의 예로써 친견하고 새로운 宗旨을 문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라 하고 있어 두 비문에 등장하는 사찰 외에도 여러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각국사의 생애를 기술한 또 다른 기록인 「興王寺墓誌銘」에는 입송 당시 만난 중국 승려들의 이름만 적었을 뿐 방문한 사찰은 기록에 없다.

2)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3, 471쪽에서 언급하였듯이 혜소국사의 표기는 慧紹, 慧照 등으로 나타나나 고려시대의 昭는 昭, 照로도 쓰였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慧照로 통일하며 한글은 혜소로 읽고자 하나 일부에서는 혜조로 발음하기도 한다.

하남성, 강소성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뒤에 기술하겠지만 송대 전륜장을 활발하게 건립한 중심지였다. 귀국한 의천은 불교계를 개편하는 한편 나라의 대소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숙종에게 鑄錢論을 건의하면서 정치 개혁에 조력하였다.⁶⁾ 의천의 정치행보 역시 입송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숙종대에서 인종대에 걸쳐 실시된 고려의 개혁정책과 왕권 강화는 북송 신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들여오는데 의천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견해이다.⁷⁾ 이렇듯 의천의 입송경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중기 무렵 여송간의 건축기술과 문화가 교류되었을 실마리는 소략하나마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에 흥왕사의 협저불상과 藏經, 양쪽 벽의 그림을 보면서 문종이 사신을 보내 송의 신종에게 고해 相國寺를 모방해 만들었다고 한다.⁸⁾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상국사를 모방한 범위를 불상과 장경, 불화에 관한 것으로 축소시켜 볼 수도 있으나 건축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남성 개봉현에 소개한 相國寺는 중심축과 그 좌우 [兩相] 에 전각을 배치하고 불전 뒤에 高閣을 두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자경각과 문수각, 보현각이 모여 세 채의 전각이 정립하는 형국인 唐宋代의 대표적인 배치형식으로 보고 있다.⁹⁾ 아직 전모를 밝

히지 못한 흥왕사를 이해하는데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明代의 항주 혜인사

의천이 입송기간 벌인 다양한 활동 가운데 杭州 慧因院의 敎藏에 대한 기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銀을 회사하여 교장 7,500권을 안치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金書 『대장경』 삼역본 18권을 보냈다.¹⁰⁾ 1094년(선종 11)에는 인예태후(의천의 모후)가 은을 시주하여 혜인사에 큰 건물을 짓고 三譯 『화엄경』을 봉안하고 노사나불과 보현·문수보살의 像을 장엄하며, 황금색과 푸른색을 찬란하게 칠하여 사찰이 새롭게 되었다.¹¹⁾ 이런 기록으로 볼 때 혜인사와 의천은 물론이고 고려왕실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편의 사실이지만 의천의 입송경험은 여송간의 건축문화 교류에 일정 기여하였을 여지

6) 박용진, 「대각국사 의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4, 54~55쪽.

7) 이에 관해서는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북송 신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8) 『宣和奉使高麗圖經』 17 祠宇 王城内外諸寺,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 사이트.

9) 광대항 주편, 『중국고대건축사(3)』 송·요·금·서하건축,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3, 257쪽. 「상국사가람 배치도」를 보면 중심축에는 전면에서부터 大山門 - 第二山門 - 彌勒殿 - 資聖閣 - 通用門을 배치하고, 미륵전 좌우에는 經藏과 鐘樓를 두고, 이 뒤에는 각

각 문수각과 보현각을 배치하였다. 미륵전 앞 좌우에는 宝奎殿과 仁濟殿이 각각 자리 잡았다. 대산문과 제이산문 사이 좌우에는 東西塔院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10) 「靈通寺大覺國師碑」, 한국금석문 종합정보영상시스템.

11) 「杭州高麗慧因寺土地喜捨記」, 한국금석문 종합정보영상시스템. 이와 같은 의천과의 인연으로 인해 항주 혜인원은 뒤에 혜인사로 이름을 바꾸고 나아가 高麗寺란 별칭을 얻었다. 「항주고려혜인사토지희사기」 등 자료를 보면 원간섭기에는 충선왕 주도로 혜인사에 寶輪藏을 짓고, 『대장경』을 시납하는 등 고려왕실과 계속 연을 이어가고 있다.

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의천이 입송하여 실견한 송의 불교건축은 고려중기 불교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런 의문을 해결해줄 명확한 단서는 찾지지 않는다.

그런데 의천의 이러한 한계와는 달리 혜소국사 담진의 주변에서는 북송의 신조류였던 전륜장을 수용하여 조성하였던 흐름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의천보다 앞서 송에 유학하였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의천이 입송할 때는 그와 동행하여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천과 행보를 함께 했던 만큼 의천과 담진의 실견범위는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소국사 담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북송의 轉輪藏 건립동향과 혜소국사의 역할

전륜장은 경전을 안치하는 저장도구의 일종이지만 회전시킬 수 있는 특수구조로 만든書架를 말하며, 轉輪經藏, 轉關經藏, 轉法輪藏, 간략하게 輪藏이라 한다. 전륜장은 분명 중국에서 고안, 제작한 특유의 시설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파급되었으며 티벳 불교의 마니차도 이에 속한다.¹²⁾ 경전을 봉안한 전각 안에

12) 티벳의 마니차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法器이다. 흔히 생각하는 손에 들고 돌리는 포타블 방식에서부터 사원 회랑 벽에 줄지어 있는 마니차는 물론 전륜장처럼 단독으로 전각 안에 봉안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만든 수력 마니차도 있고,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풍력 마니차, 그리고 사원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도 소량의 마니차를 줄지어 세워놓고 돌리는 신앙심이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다. 티벳 마니차를 윤장의 선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중국에서 전륜장이 등장하는 시기와 티벳 불교의 발전적인 면에서 볼 때 이는 무리한 추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티벳 마니차는 전륜장에 비해 제작비가 덜 들고, 안에 경전을 안치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어 분명 독자적인 특성을 갖춘 윤장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손에 쥐고 돌리는 마니차의 경우 안에 중심축 주위에 두루마리 경전이 돌돌 말려있고, 사원 회랑에 설치된

설치한 가구의 일종이지만 벽장은 경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 전륜장은 회전식으로 특수하게 변화 발전된 것이다. 즉 전륜장은 본질적으로 벽장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경장에 속하지만 轉輪이란 기능을 추가면서 그에 내포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유형으로 정착하였다.¹³⁾

전륜장을 창안한 사람은 대체로 南朝 梁나라의 傅翕(497~569)으로 보고 있다. 1143년에 간행된 『善慧大士錄』 권1에 따르면, “大士在日常以經目繁多 人或不能遍閱 乃就山中建大層龕 一柱八面 實以諸經 運行不礙 謂之輪藏”이라 하여 일상이 번잡하여 사람들이 경전을 열람하기 어려우므로 산 중에 커다란 層龕을 세웠는데 기둥 하나에 팔면으로 여러 경전을 안치하여 운행하는데 구애되지 않았는데 이를 일러 윤장이라 하였다고 밝혔다. 『明州定應大師布袋和尚傳』에는 轉經功德를 쌓아 成佛正因의 인연을 맺는다고 하여 전륜장의 기능을 거론하고 있다. 宗鑑(?~1206)이 쓴 『釋門正統』 「塔廟志」에는 “今大士特興慈悲 在在處處創此機輪 運轉不息 …先民所謂智者創物 大士基有焉”이라 하여 부휴이 윤장을 고안하였다고 하였다.¹⁴⁾

하지만 실제 전륜장 건립 관련 기문은 唐代에 처음 등장하는데 전륜장에 관한 현존 최고의 확실한 기록은 822년(唐 長慶 2) 楊承和가 지은 『那國公德銘』이다. 여기에 실린 전륜장을 살펴보면 하부는 지하에 묻혀있고, 지면 부분은 누각과 같은 형상으로 5층이며 상방에 4개의 문을 내고, 문 안에 시령을 설치하여 경

줄지어 있는 마니차도 내부는 같은 방식으로 경전이 안치되어 있다.

13) 張十慶, 『中國江南禪宗寺院建築』, 호북교육출판사, 2002, 91쪽.

14) 張勇, 『傅大士研究』, 巴蜀書社出版發行(사천성 成都), 2000, 442쪽.

권을 안치하였다. 윤장 외면은 용과 귀신같은 조각을 장식하고 수륜에서 나는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였으며, 북면에는 鏡燈이 있어 그것을 비쳤다. 이런 설명을 보면 이미 전륜장은 상당히 발전하여 성숙한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白居易(722~846)가 남긴 「蘇州南禪院千佛堂轉輪經藏」(839) 기문에 “천불당은 전륜경장으로 (중략) 堂 가운데 위는 지붕이고 아래는 장인데, 지붕과 장 사이는 9층으로 감실이 있고 채색하고 금벽으로 장식하였다. 둥그런 지붕은 거울 62개를 늘어뜨리고, 장은 8면이며, 각 면에는 문 2개가 있고 붉은 칠을 한 銅錯로 고정하였다. 장 안에는 회전축을 세웠는데 열레로 멈출 수 있게 만들었으며, 경함 256개, 경권 5,058을 안치하였다”고 적었다.¹⁵⁾ 이와 같이 전륜장 조성 기록이 唐代에 등장한다는 데에 착안하여 그 기원을 당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¹⁶⁾ 대체로 부흥 창안설은 지지를 받고 있다.¹⁷⁾ 위에서 살핀 기록 외에도 唐代의 전륜장에 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 당시에 이미 여러 곳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전륜장을 고안한 이유는 『佛祖統紀』 輪藏條에 “양나라 부대사가 세상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겨를이 없거나 혹은 문자를 알지 못하므로 이에 雙林道場에 經卷을 봉안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글자를 몰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윤장을 한

번 돌림으로써 경전을 한번 읽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轉輪功德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교대상이었을 것이다.

전륜장은 분명 인도불교와는 상관없는 중국의 자발적 산물임에 틀림없는데 중국에서 유교경전을 중시한 태도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지적인 자료는 당대에 들어 나타나지만 송대, 특히 남송대에 전륜장은 크게 발전하였으며 인쇄술 발달은 전륜장 흥성에 한 몫을 하였다. 전륜장은 양절로, 강남동서로, 사천로, 복건로 등지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강남지방의 경제적 여유와 관련이 깊으며, 이 지역은 또한 송대 불교사원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란 특성도 지녔다. 당시에 건조된 전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禪院에 나타나며, 비선원은 극히 소량뿐이다. 현재 북송 때 전륜장을 건립한 사료는 56개소, 남송 때는 59개소에 이른다.¹⁸⁾



<그림 2> 허북성 隆興寺 전륜장
(『세계미술대전집 5』)

현존 중국의 전륜장은 북송대의 용흥사 전륜장, 남송대의 운암사 비천장과 대족석굴의 석조 전륜장, 명대의 북경 지화사 전륜장과 평무보은사 전륜장, 청대의 북경 이화원의 전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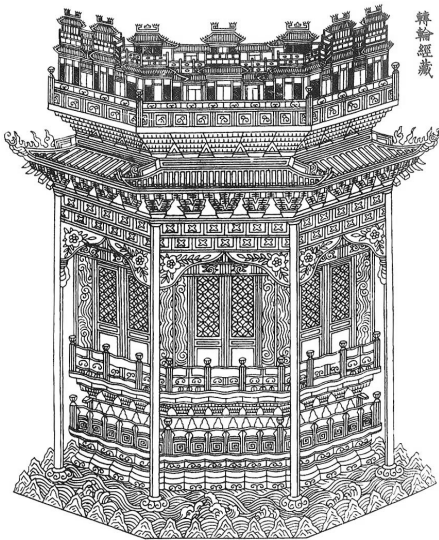
15) 張勇, 『傳大士研究』, 巴蜀書社出版發行(사천성 成都), 2000, 451쪽.

16) 黃敏枝, 「關於宋代寺院的轉輪藏」, 『普門學報』 8, 2002, 1쪽, www.ehud.net에서 내려받은 자료로서 인쇄된 『보문학보』의 쪽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7) 청나라 때 유문천이 지은 『南朝佛寺志』에는 전륜장을 최초로 설치한 곳을 建康 定林寺라고 밝히고 있다.

18) 黃敏枝, 「再論宋代寺院的轉輪藏(하)」, 『청화학보』 26, 대만 청화대학교, 1996, 274~276쪽.

장 등이 남아 있다. 이밖에 실물은 아니지만 『영조법식』에 수록된 「전륜경장」은 송대 전륜장의 구조와 형태, 장엄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이처럼 북송대의 관찬 건축 서에도 「전륜경장」 삽도가 그려져 있고 상세하게 규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사찰건축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법식』의 그림을 보면 전륜경장은 팔각형의 누각형태이며, 內槽 각 면에는 두 짝 여단이문을 설치하고, 문 안쪽 즉 내조 내부에 經匣을 안치하는 방식이었다.¹⁹⁾ 여기에 더하여 「오산십찰도」에는 남송 鎮江 金山寺의 전륜경장이 실려 있다.



<그림 3> 『영조법식』의 「전륜경장」

이런 추이로 볼 때 의천 입송 무렵 송의 강남지역은 전륜장 조성에 열의를 올리기 시작할 때였다. 그가 방문하였다는 사찰 중에 大中祥符寺만 유일하게 전륜장을 두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절의 전륜장도 건립시기를 알 수 없고 다만 1220년(가정 13)에 소실

19) 竹島卓一, 『營造法式の研究(二)』, 중앙공공미술출판(일본), 1941, 703쪽.

되었다²⁰⁾는 기록만 남아 있어 의천 입송 때 존재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가 방문했던 明州와 인근의 秀州에는 전륜장을 구비한 사찰이 상당히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의천이 전륜장을 실견하고 그 용도나 활용도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며 동행자인 담진 역시 이를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 입송 시 의천 방문 사찰

시기	전거	방문 사찰
1085년	「선봉사대각국사비」	개봉 啓聖院(啓聖寺)
		相國寺
		건강 興國寺(太平興國寺)
1086년	「영통사대각국사비」	金山寺
		啓聖寺
		大中祥符寺
1086년	「선봉사대각국사비」	향주 慧因院
		天台山
		明州 阿育王山 廣利寺(阿育王寺)
1086년	「영통사대각국사비」	水州 眞如寺(眞如禪院)
		혜인선원
		천태산

혜소국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의천이 입송할 때 동행한 쌍계사의 담진이란 견해가 유력하다.²¹⁾ 송의 무역 거점도시였던 향주는 고려의 대송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창구였으며, 의천이 입송하기 전에도 고려 승려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담진이 속해 있었다. 『續資治通鑑長編』에도 1076년

20) 黃敏枝, 「再論宋代寺院的轉輪藏(上·下)」, 『청화학보』 26, 臺灣, 1996에서 논문 말미에 북송, 남송대 전륜장 건립의 기문을 정리해 두었다.

21) 今與雙溪寺大師曇眞 緇素 共一十一人 同約欲隨商客船發行, 「請入宋求法表」, 『대각국사문집』 5; 『한국불교전서』 4, 533쪽. 의천이 송으로 떠날 때 담진이 동행하지 않았으리란 견해가 지배적인데 「영통사대각국사비」, 『고려사』 등의 기록에는 제자 2명만을 데리고 도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北宋新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54~55쪽에 기술하였듯이 중국의 사료 등을 종합할 때 담진의 동행은 분명하다.

(희녕 9) 항주 天竺寺에 머물고 있던 고려 승려 3인을 汴京으로 불러 올렸고, 3년여가 지난 1080년(원풍 3)에는 이들 3인에게 각각 대사의 號(담진에게는 法遠大師를 하사)를 내리고 紫方袍를 하사하면서, 고려의 사신과 함께 귀국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들은 뒤에 의천의 도승을 돕고 교류했던 정인에게서 수학하였다.²²⁾

담진에 대한 국내 사료를 보면 1106년(예종 1) 長寧殿에서 선을 설법하고 비를 빌었으며,²³⁾ 1107년에는 王師로 삼고,²⁴⁾ 1114년에는 國師로 삼았으며,²⁵⁾ 이후 기록은 드러나지 않다가 1116년에는 設禪을 들었다.²⁶⁾ 이처럼 담진은 예종 1년부터 11년 사이 10여 년간 고려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왕사를 거쳐 국사까지 맡았다. 「용문사증수기」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는 예종대에 혜소국사가 국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어 혜소국사와 담진은 동일 인물이 분명하다.²⁷⁾

담진이 입송해 있던 1076년 무렵은 그간 단절되어 있던 고려와 송의 국교가 비로소 재개된 시기였다. 1068년과 1070년에 송의 신종이 국교재개를 타진해왔고, 드디어 1071년에 110인의 사행을 송에 파견함으로써 송과의 국교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입송 이전에 송을 방문한 외교사절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대각국사 의천의 도승은 108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담진보다 9년 뒤의 일이었다.

담진은 승려의 신분으로서 고려와 송의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에 송으로 유학했던 선구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3년간의 체재기간 동안 정인의 법맥을 이었다는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그는 송의 고승 등 적지 않은 승려들과 교류하였을 것이며 당시 송의 불교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그의 도승 경험은 뒤에 의천 입송 때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이뿐만 아니라 혜소는 예종대에도 송으로 건너가서 遼本 『대장경』 3부를 구입하고 있어²⁹⁾ 도합 세 차례에 이르는 입송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혜소의 행적은 그가 고려중기 전문장 도입에 기여하였고 이후 그의 문도를 중심으로 전문장이 전파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12세기 慧照國師 門徒와 주변의 轉輪藏 조성

3-1. 고려 전·중기 大藏殿과 轉輪藏

고려 전·중기 대장전 내부의 서가방식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흔치 않다. 표2는 지금까지 기록이나 발굴자료로 확인한 고려전·중기의 대장전 건립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전·중기 대장전 건립은 12개

22)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北宋新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58~59쪽.

23) 『고려사』 12 세가12 예종 1년 6월 기축.

24) 『고려사』 12 세가12 예종 2년 1월 을묘.

25) 『고려사』 13 세가13 예종 9년 6월 계사.

26) 『고려사』 14 세가14 예종 11년 윤1월 임인.

27)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北宋新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59쪽. 물론 다소의 이견을 개진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대체로 혜소국사=담진설을 동조하는 추세이다.

28)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北宋新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55~64쪽. 같은 논문에서는 정치사의 관점에서 曇眞-義天-淨因-神宗과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해인사의 정인은 신종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神宗代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황제, 황실과 밀착하였으며 신법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주도하였던 정계의 저명한 정치인들과 교류하였다.

29) 『삼국유사』 3. 塔像 4에는 혜소국사가 조서를 받고 중국으로 유학 가서 요나라에서 만든 『대장경』 3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한 권은 定惠寺에 있고, 한 권은 해인사에, 나머지 한 권은 許參政 덕에 있다고 하였다.

[표 2] 고려 전·중기 대장전 건립 기록과 서가방식

사찰	藏殿		내부	시 기	전거
	전각명칭	규모			
定林寺址(부여)	大藏			1028년(현종 19)	와당명문(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唐草)
金山寺(김제)	海藏殿	50칸			『金山寺誌』
	大藏殿	4면3칸			『金山寺誌』
開國寺			『대장경』	1083년(문종 37)	『高麗史』
	大藏堂			1121년(예종 2)	『高麗史節要』
홍왕사(개성)	大藏殿			1087년(선종 4)	『高麗史』
	미상		협저불상, 藏經, 불화	1124년(인종 2)	『高麗圖經』
文殊寺(춘천)	轉經臺			1089~1125년	「和清陰遊清平錄」
홍원사	대장당			1101년(숙종 6)	『高麗史』
혜음사지(과주)	건물지	3×1칸		1122년(예종 17)	십자형 석재 건물지(전륜장)
水精社(지리산)	미상		『대장경』	1123~1129년	「智異山水精社記」
國淸寺(개성)	대장당		經函	1116~1128년	「영국사원각국사비」
雙峰寺	轉輪大藏			1157년(의종 11)	「廣智大禪師智印墓誌銘」
智勒寺	轉輪大藏			1157년(의종 11)	「廣智大禪師智印墓誌銘」
天神寺(남원)	別殿			1169년(의종 23)	「南原郡夫人梁氏墓誌」

소 정도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서 내부의 서가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는 홍왕사와 국청사 두 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개략의 윤곽만 짐작 가능하다.

대장전 내부에 전륜장을 시설한 사찰은 문수원을 비롯하여 혜음사지, 지리산, 쌍봉사 등 4개소에 달하고 있다. 총 12개소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고려중기 이전에 이미 전륜장 건립 조류가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을 까하는 가정을 해본다. 그리고 이들 사례가 모두 혜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면에서 특정 계보와의 연관성을 역설하고 싶다.

단편에 불과하지만 혜소국사는 광명사의 주지를 지냈고, 체자인 관승이 뒤에 광명사 주지를 역임하며, 혜소가 중창한 쌍봉사에 지인이 전륜장을 조성하고, 관승은 금강재에 머물던 윤언이와 선생활을 다지고 있었고, 지인은 금강사(금강재를 말함)의 주지를 맡고 있어³⁰⁾ 법맥과 사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0)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3, 470쪽.

3-2. 李資玄의 文殊院과 轉經臺

문수원은 현재 강원도 춘천에 있는 청평사의 전신이다. 「清平山文殊院記」에는 973년(광종 24) 永賢(永玄으로 판독하기도 함)선사가 창건한 白巖禪院에서 출발하고, 1068년(문종 22)에 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한 李顥(?~?)는 이곳의 경치를 사랑하여 옛터에 절을 짓고 普賢院으로 이름을 고쳤다. 뒤에 그의 아들인 李資玄(1061~1125)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산 이름을 청평산으로 고치고, 문수보살의 감응을 두 번이나 받게 되자 아예 이름을 문수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는 절 밖 다른 동리에 사사로 거처하는 집을 지었는데, 암자, 불당, 정자 등이 10여 개소에 이르렀으며 불당은 聞性, 암자는 見性, 仙洞息庵 등으로 각기 그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³¹⁾ 이를 보면 현재 청평사 사역

31) 김부철, 「清平山文殊院記」, 『동문선』 64, 記. 기문을 새긴 비석은 현재 비편만 남아 전하고 있다. 기문은 그 내용이 여러 책과 탁본으로 남아 있는데 원문 여부는 다소 논의가 있는 편이다. 최근 기문의 원문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홍성익,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 복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를 참고하기

외에도 주변 곳곳에 건물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자현은 문수원에 은거하면서 居士佛敎를 편 인물로서 특히 『능엄경』을 중시하였는데 그의 이런 태도는 의천과 마찬가지로 禪敎를 아우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³²⁾ 혜소와 이자현과의 관계를 보면 「청평산문수원기」에 그는 이웃한 산의 華岳寺 주지였던 혜소국사와 왕래하면서 선의 교리를 질문하였다고 한다.³³⁾ 그는 선승은 아니지만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존재인 국사 2인 즉 혜소와 대감국사 탄연에게 감화를 줄 정도로 심오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³⁴⁾ 이처럼 이자현과 혜소-탄연으로 이어지는 법맥과의 관계는 혜소가 실견한 전륜장을 조성할 기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수원의 경장건축에 관해서는 이자현 당대는 아니지만 조선 중기에 이곳을 방문한 張維(1587~1638)가 기록을 남겼다. 그가 쓴 「和淸陰遊淸平錄」에는 “암자 앞엔 轉經臺만 외로이 남았고녀”란 구절이 나오는데³⁵⁾ 이를 보면 그가 방문한 즈음까지 전경대 즉 전륜장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암자는 문수원 중심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나 혹 이자현이 문수원 주변에 조성한 여러 암자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가지 문제는 조선중기에 장유가 분

바란다.

32) 이병옥,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해안, 2002, 190~198쪽.

33) 홍성익은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 복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취구논문, 2004, 48쪽에서 화약사의 위치를 龍華山の 法華寺址 또는 華岳山 獅子寺址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34)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3, 471쪽.

35) 張維, 「和淸陰遊淸平錄」, 『溪谷先生集』 33, 칠언절구. 원문은 眞樂禪翁去不廻 菴前獨有轉經臺 山靈每厭塵蹤到. 應喜淸陰老子來이다.

전경대의 건립시기로서, 이자현 당시인지 아니라면 조선전기 普雨 중창 무렵 일지 확인은 곤란하다.

문수원은 1557년(명종 12) 보우가 중창하면서 청평사로 사명을 고쳤으며, 현재 남아있는 석축을 비롯한 건물지는 이때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이자현이 중창한 문수원 유구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⁶⁾

장유가 쓴 「화청음유청평록」은 金尙憲(1570~1652)이 1635년 3월 8일 청평산에 와서 남긴 기행문 『淸陰集』에 화답하였으므로 1635년 이후의 청평사 모습을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하한을 염두에 둘 때 전경대 건립시기는 이자현 당시에 보우의 중창 둘 다 해당된다. 그런데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의 비문에 따르면 원간섭기에 원나라 泰定帝(1324~1328)의 황후가 佛書 1藏을 이곳에 보시하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 경전뿐만 아니라 경장까지 건립하였다면 분명 비문에 그 내용이 거론되었을 테지만 불경보시와 시주금, 飯僧, 경전 闕讀 등에 관한 사안만 적고 있어 전각은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⁷⁾ 그러면 원황실에서 보시한 경전은 어디에 안치하였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원황실에서 문수원에 보시할 때 사원에는 이미 경장이 존재하였고 시차로 볼 때 이자현 당시 문수원의 경장이 지속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다.³⁸⁾

36) 강원문화재연구원, 『청평사 강선루·회전문 부분 보수공사에 따른 유구확인조사 약보고서』, 2001, 9~10·23쪽; 홍성익, 「춘천 청평사 가람배치의 종합적 검토」, 『강원사학』 19·20, 2004, 23쪽.

37) 李齊賢,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東文選』 118, 碑銘.

38) 조선에 들어서 보우가 청평사를 중창할 무렵 전륜장을 새로 건립한 사례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보우가 수리한 회암사 대장전의 예로 보아도 기존 전륜장 대신에 불상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개조되고 있어

현재 청평사지 사역에 전경대가 있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앞서 장유의 시구 가운데 암자 앞이란 표현으로 미뤄 청평사 사역이 아니라 주변의 암자에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전륜장의 기능으로 볼 때 사사로운 이자현의 주거공간이나 소규모 암자에 두었을 개연성은 낮다. 설사 암자에 전경대를 두었다면 주변 여러 암자 가운데 그가 거처로 사용한 息庵이 제일 유력하다. 식암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을 보면 매우 협소한 곳으로 나타나 전경대와 같은 시설을 두기에 부적합하다.³⁹⁾ 따라서 장유가 표현한 菴前이란 글자는 시어로 보고 이는 청평사 전면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문수원의 전경대는 사역 전면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서 참고할만한 부수자료로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의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평사 회전문 전면 넓은 대지에는 좌우에 각각 비좌 1기가 남아 있다. 서쪽은 「淸平山文殊院記」를 새긴 비석이었고, 동쪽은 원간섭기에 『대장경』을 봉안한 사실을 기록한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이나 둘 다 비신은 파괴되고 비좌만 잔존한다. 동쪽에 시장경비를 세운 것은 이와 연관 깊은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때문은 아닐까. 즉 시장경비가 위치한 동쪽 공간 어딘가에 전경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런 견해를 제시해

이때 전륜장을 신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신증동국여지승람』 46, 강원도 춘천도호부 산천 항목을 보면 息庵에 대하여 “골짜기 안의 그윽하며 따로 떨어진 곳에는 쉬는 암자를 지었다. 동그렁기가 고니 알 같고 겨우 두 무릎을 세울만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주변도 협소하지만 암자 자체도 소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식암의 위치를 淸平息庵이란 각자가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성익은 「춘천 청평사 가람배치의 종합적 검토」, 『강원사학』 19·20, 2004, 34~35쪽에서 현재 적멸보궁 터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보지만 앞으로 청평사 사역 전체의 배치와 함께 검토해 나갈 여지가 많아 단언은 곤란하다.⁴⁰⁾

3-3. 惠陰寺址 十字形 石材

파주 혜음사는 개경에서 남경으로 연결되는 지리의 요충지에 경영되었다. 혜음사는 종교적 기능인 승려들의 수행장소와 백성들의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신앙처로서의 기능과 함께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민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원이었다.⁴¹⁾

「惠陰寺新創記」에 따르면 1119년(예종 14)부터 공역에 대한 논의를 하여 1120년(예종 15) 2월에 공사를 시작하고 1122년(예종 17) 2월에 완공하였다. 이때 완성한 건물로는 불당과 유숙하는 건물, 주방, 창고 등을 기술하고 있어 불당 못지않게 유숙하는 곳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別院을 지었는데 이는 왕의 행차를 대비한 일종의 행궁을 조성한 것이다. 예종은 혜음사란 절 이름을 내렸고, 왕비 임씨는 여행자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구를 보충하였다.⁴²⁾

기문에 따르면 혜음사 창건공사는 예종의 측근 李少千이 공역을 주도하였고, 묘향산 僧

40) 1635년에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김상헌이 쓴 『청음집』에는 절 앞의 雙池에는 두 개의 비가 있는데 서쪽이 문수원기이고 동쪽이 장경비라 하였다. 두 비석이 있는 이 일대는 고려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던 지역으로 보고 있어 두 비석의 배치도 당시에 정한 대로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1) 전영준, 「고려 예종대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 『진단학보』 97, 2004, 43쪽. 혜음사지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소재한 고려시대 절터로 ‘惠陰院’, ‘惠陰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되면서 『동문선』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혜음원(사)지임을 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30여동에 달하는 건물지와 다양한 유구를 발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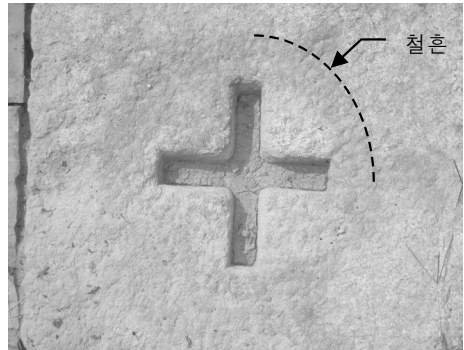
42) 김부식, 「惠陰寺新創記」, 『동문선』 64, 記.

徒들이 동원되어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혜소국사가 혜음사 창건에 참여했다는 인연은 확인할 수 없다. 혜소의 생몰년대는 미상이나 그의 眞贊을 남긴 이자현이 1125년에 사망한 것을 볼 때 최소한 그 이전에 혜소는 입적하였을 것이다.⁴³⁾ 여기에 더하여 담진 이후에 1122년(인종 즉위년)에 德緣을 국사로, 學一을 왕사로 추대하고 있어 이 무렵 입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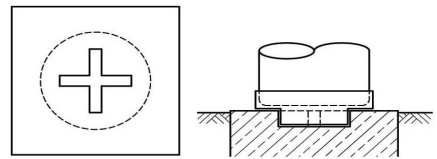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혜소의 생몰년을 토대로 볼 때 「혜음사신창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혜소는 여전히 국사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고, 예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아들까지 출가시켰던 인연을 맺었으므로 예종과 혜소의 교유는 남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혜음사지에는 4-4건물지로 명명된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잔존 초석과 적심으로 미뤄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총 규모는 남북 14m, 동서 8.4m로 추정하였다. 좌향은 서향이며, 바닥에 깔았던 전돌이 남아 있고 북쪽 1칸은 초석과 고맥이돌이 잘 남아 있다. 혜음사지 건물지에서 조사된 초석은 대개 방형으로 석재 상면을 편평하게 다듬어 사용하거나, 방형 초반석 위에 팔각나지는 사각의 작은 초석을 올려 사용하였다. 하지만 4-4건물지의 초석은 정방형의 석재 상면을 가공하여 원형의 주좌와 고맥이부좌를 마련하였다. 초석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약 70cm이고, 주좌의 직경은 약 58cm이다. 고맥이 폭은 30cm 정도이다. 잔존 한 칸 가운데 서쪽만 장대석으로 가공한 고맥이를 깔았고, 나머지 삼면은 직사각형 전돌로 고맥

이를 대신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북쪽 한 칸에는 26cm 크기의 방형 전돌이 깔려 있고, 건물의 바닥으로 볼 때 다른 두 칸에도 전돌을 깔았던 곳으로 보인다. 잔존 한 칸의 가운데 부근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정방형 석재 하나가 깔려 있는데 가운데에 길이 30cm 가량 되는 십자형 홈이 뚫려 있고 아주 정교하게 가공하였다.⁴⁵⁾



<그림 4> 혜음사지 십자형 석재 주변의 철흔



<그림 5> 혜음사지 십자형 석재 구조 추정도

십자형 홈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면 십자형 외곽에 원형으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 흔적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철제품의 잔흔으로 생각된다. 이 흔적은 십자형 홈의 명확한 용도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십자형 홈에 고정시킨 전륜장 축기둥의 윤곽이 바로 원형 흔적인 것이다. 즉, 십자형 홈은 축기둥을 고정시키는 용도이고, 둥근 흔적

43) 李資玄, 「慧紹國師眞贊」, 『동문선』 50, 贊.
44) 정재일(寂滅), 『慈覺宗蹟의 禪院淸規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324쪽.

4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 혜음원지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4, 7~8쪽.

은 축기둥의 단면 크기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4-4건물지는 한 칸만 잔존하고 있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고막이 설치 상황으로 미루어 배면(서쪽)은 벽체를 쌓았고, 나머지 삼면은 개방하였거나, 아니면 비교적 두께가 얇거나 가변성 있는 재료로 벽을 시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배면 고막이는 가공한 장대석재를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면은 전돌을 고막이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바닥에 전돌이 깔려있고, 이 전돌 바닥은 기단 상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신발을 신고 드나들었던 건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전하는 전륜장 이용 면에서도 바닥에 전돌을 깐 실내 바닥처리는 타당한 선택이다. 셋째 십자형 석재의 용도를 전륜장 하부 구조를 지탱하였던 석재로 판단할 경우 정면 세 칸 가운데 오른쪽 한 칸에만 전륜장을 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타당한 전륜장 배치는 세 칸 가운데 좌우 두 칸에 전륜장을 시설하고 가운데 칸은 불상 같은 예배대상을 존치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존하는 예천 용문사의 대장전 내부와 같은 구성이다. 이렇게 볼 때 양륜을 두었을 가능성이 혜음사지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4. 智勒寺 轉輪大藏

광지대선사 智印(1102~1158)은 고려 예종의 아들로 9살 때 혜소국사에게 의탁하여 불문에 들었으며 智勒寺와 鈴平 金剛寺, 쌍봉사 등에 머물렀다.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에는 그가 윤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餘貲營轉輪大藏於雙峰智勒兩刹”이란 글귀로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이를 “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쌍봉과 지록 두 사찰에서 『대장경』을 간행하여 유포시키니...”라

고 해석하였다.⁴⁶⁾ 즉 ‘전륜대장’이란 네 글자를 『대장경』을 간행하여 유포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남은 재산으로 쌍봉, 지록 두 사찰에 전륜대장을 지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륜대장은 전륜장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宋代의 경장은 大藏과 小藏으로 나뉘어 있어 소장에는 『반야』 60권, 『보적』 120권, 『화엄』 80권, 『열반』 40권, 모두 840권을 안치하였고, 대장에는 『개원록』에 의거하여 48장을 가리키는 바, 800함, 모두 5,048권을 안치하였다. 사원들은 재력에 따라 먼저 小輪藏을 짓지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후에 다시 보시를 구하여 大輪藏을 완성하였다.⁴⁷⁾ 이런 사례에 근거할 때 쌍봉사와 지록사의 전륜대장이란 전륜장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고려중기 윤장 구성에 있어서 대소를 구분하였는지 알려주는 사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지인이 두 사찰에 윤장을 설치한 때는 「광지대선사지인묘지명」의 기록 순서로 미루어 1157년~1158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가 전륜대장을 시설한 쌍봉사와 지록사의 위치는 비문에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략의 지명으로 볼 때 화순 쌍봉사와 옥천 지록사로 짐작된다. 두 사찰에 관해서는 1407년(태종 7) 명찰로써 資福寺를 대신하기를 청하는 계문 가운데 조계종 소속의 옥천 智勒寺가 실려 있고,⁴⁸⁾ 1458년(세조 4)에 해인사의 경관을 인쇄하여 『대장경』 50부를 만들었는데 이때 綾

46)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47) 黃敏枝, 「觀于於宋代寺院의轉輪藏」, 『普門學報』 8, 臺灣, 2002, 4쪽. www.ch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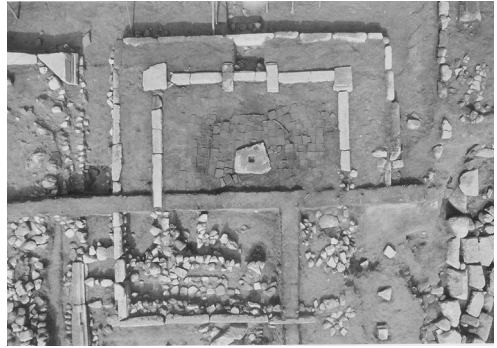
48) 『태종실록』 태종 7년 12월 2일.

城 雙峰寺와 沃川 地勒寺가 등장하나 지류사의 한자표기는 달리 쓰였다.⁴⁹⁾

먼저 능성 쌍봉사는 능성이란 지명으로 볼 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있는 현 쌍봉사임에 틀림없다. 지인은 어떤 인연으로 쌍봉사에 전륜대장을 시설하였을까. 그 대답은 「雙峰寺勸建碑文」에서 찾을 수 있는데 紹聖(1094~1097) 연간에 혜소국사가 쌍봉사를 중창한 것이다.⁵⁰⁾ 師僧(혜소)이 중창한 사찰에 제자(지인)가 전륜대장을 조성한 것은 자연스러우나 아쉽게도 현재 쌍봉사 경내에서 전륜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류사의 한자표기는 「광지대선사지인묘지명」에 智勒寺로, 『세조실록』에는 地勒寺로 달리 나타나지만 옥천이란 지명으로 볼 때 둘은 같은 사찰로 짐작된다. 이 지명에 근거할 때 현재 충북 영동에 있는 영국사가 위치한 산 이름이 바로 智勒山이어서 옥천 地勒寺는 바로 「광지대선사묘지명」에 등장하는 智勒寺와 같은 사찰로 판단된다. 근래 영국사는 舊寺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 5개소와 담도, 석축, 그리고 금동불상 등을 찾아냈고,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뒤 두 차례 이상 중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⁵¹⁾ 5개소의 건물지 중에서 추정 금당지와 그 좌우에 있는 건물지 2개소는 고려시대 영국사의 건축 면모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발굴된 사역 가운데 제2건물지로 명명된 건물지는 정면, 측면 1칸 규모이다. 추정 금당지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정남향이다. 기단은 약 70cm 높이로 축조하였다. 건물지의 북쪽 뒷부분은 초석과 심방석, 건물 내부의 전돌이 잘



<그림 6> 영국사 전륜장전 건물지(충청대학교박물관)

남아 있으나 남쪽 앞부분은 상면의 초석, 심방석 등이 모두 유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이 건물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내부 바닥 한가운데에 118×102cm 크기의 석재가 있는데 중앙에 16×16cm, 깊이 10cm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이 구멍 뚫린 석재의 용도 전륜장 중심주를 지지하였던 심초석의 기능이었다고 판단된다. 흙을 중심으로 지름 약 30cm 가량의 적갈색 흔적이 원형으로 남아 있다. 이는 쇠가 녹슨 흔적으로 생각되며 철제 구조물을 세워 고정시켰던 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석재 주변 바닥은 전돌을 깔았고, 일부만 남았으나 흙이 뚫린 석재를 중심으로 전돌을 세워 지름 286cm의 모양을 만들었다. 잔존 초석 2개는 상면만 평평하게 다듬었고, 심방석은 몰딩 1단을 가공하였으며, 잔존 벽체 모두 고맥이가 남아 있다.⁵²⁾

잔존 건물지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으나 몇 가지 추론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잔존 초석 사이의 거리가 6m라는 것으로서 건물지는 상당히 주간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층고도 비례하여 높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물지의 바닥은 전돌을 깔았으므로 신발을 신고 사용하는 입식공간이었다. 셋째 사각형 흙이 파인

49) 이덕무, 『청장관전서』 55, 「해인사의 장경」.

50) 조선총독부, 『朝鮮寺刹史料』, 1907, 347~348쪽.

51) 「영동 영국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충청대학 박물관, 2003, 1쪽.

52) 「영동 영국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충청대학 박물관, 2003, 5~6쪽.

석재가 건물지 가운데에 자리한 것으로 미뤄 건물 내부에는 전륜장 1기를 시설하였을 것이다. 넷째 사각형 흙이 파인 석재 주변의 철혼은 전륜장을 고정시킨 구조체가 철제였음을 알 수 있고, 철혼의 직경은 곧 축기둥의 단면 규격을 개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혼은 앞서 살펴본 혜음사지 4-4건물지에서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잔존한 고맥이돌로 볼 때 사면 모두 벽체를 축조하였을 것이며, 북쪽에 남은 심방석으로 미뤄 남북 양쪽에 출입문을 냈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영국사 건물지의 경우 주칸의 너비로 미뤄 볼 때 내부에 시설된 전륜장 大藏이란 표현만큼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발굴조사 결과는 이 제2건물지를 16세기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전륜장 건물지를 16세기에 다시 조성한 것인지, 광지대선사 지인 때 조성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공한 초석의 형태와 주간에 고맥이돌을 설치한 점은 고려시대 건물지 방식이고, 심방석을 둔 출입문도 역시 시대가 올라가는 창조개폐방식이어서 고려시대 건물지로 보아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1458년 세조가 인간한 『대장경』 50부를 각 사찰에 안치할 때 전각을 건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미 경전을 봉안할 전각을 갖춘 사찰을 선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1458년 당시 지록사에는 경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 이후 1458년, 그리고 현 건물지의 추정연대인 16세기까지 지속하여 경장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그 시원은 광지대선사 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⁵³⁾

53) 「광지대선사묘지명」에 나오는 두 사찰 가운데 지록사(영국사)의 전륜장전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할 때 쌍봉사에도 분명 전륜장을 조성하였

4. 慧照에서 祖膺으로 계승된 轉輪藏 조성의 전통

4-1. 祖膺의 法脈과 造營思想의 연원

고려중기 선종계는 의천의 등장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선종의 6, 7할이 천태종으로 전향하였다고 한테서 잘 드러난다 하겠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자현, 혜소국사, 탄연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자현의居士禪과 혜소국사, 탄연, 조응으로 이어지는 굴산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된 바 있지만 이들의 사상을 잘 계승한 승려가 예천 용문사를 중수하고 여러 불사를 주관하였으며 동시에 운장을 조성한 祖膺이었던 것이다.

李資玄
 慧照國師 → 대감국사 坦然
 → 貫乘 → 英甫 → 祖膺
 → 금강거사 尹彦頤(貫乘과 교류)
 → 廣智大禪師 之印

<그림 7> 혜소국사를 중심으로 본 사상 계보

예천 龍門寺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장을 시설한 대장전을 갖춘 사찰이다. 현재 대장전 건물은 17세기 건물로 추정하고, 현존 운장대 역시 天啓元年이란 목서에 근거할 때 1621년(광해군 13)에 중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용문사에 경장을 시설한 것은 고려 명종연간이다. 용문사에 운장을 마련하게 된 사정은 「重修龍門寺記」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기문은 1165년(의종 19)부터 1179년(명종 9) 사이에 벌어진 15년간의 용문사 중창공사의 진말을 적었다. 기문을 토대로 보면 1165년 조응은 자신을 대신하여 資巖을 보내 공사

을 것이다. 향후 쌍봉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길만 남았다고 하겠다.

를 시작하여 道場堂 3칸을 비롯 승방, 주방, 창고 등의 전각을 짓고 佛盤(불상 받침), 幡幢 같은 법구 및 사람들이 사용할 술 같은 일상 용구까지 갖추어 절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어 1173년(명종 3)에는 조응의 발원으로 輪大藏 두 개와 (이를 안치할) 건물 3칸(三間堂)을 만들고 7일간 법회를 열면서 학자 300인을 모으고 開泰寺의 穎緇 승통을 초청하여 설법함으로써 낙성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였다. 이처럼 輪大藏 2좌와 堂三間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현재 대장전 같은 규모의 건물을 마련하고 내부에는 윤장대 2좌를 시설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지금과 유사하게 대장전 안에 윤장 2좌를 좌우에 각각 두고 중앙에는 존상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에 三萬僧齋를 개설하고 윤장을 설치함으로써 국난을 구하려 하였다는 것으로써 윤장을 조성하게 된 목적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⁵⁴⁾

그 사이인 1171년(명종 1)에는 태자의 태를 용문사 밖 봉우리에 매장하게 되면서 사세는 더욱 확고해졌던 것 같고 고려왕실과의 관계 역시 공고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명종은 용문사 외에도 龍壽寺에 毅宗을 위한 축수를 했

고, 상주 龍巖寺는 명종의 추복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내당을 내렸다. 명종은 이런 사원 경제의 기반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한 기반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불교기반을 무인집정자의 감시 하에 개경 주변에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방의 태자 胎藏所 지정과 의종의 원당을 명목으로 재정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사상적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용문사 증수에 큰 역할을 한 조응을 위한 비문이 왕명으로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⁵⁵⁾

용문사 증창을 주도하고 윤대장을 조성한 조응은 혜소-관승-영보로 연결된 법맥에 있다. 이 사상적계보에 속한 인물들은 전륜장 건립과 연결된 건축적 특성도 나타내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자현의 문수원에는 전경대가 있었고, 광지대선사 지인은 쌍봉사와 지륜사에 전륜대장을 건조하였고, 계보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예종대 창건된 혜음사의 십자형 석재 역시 전륜장 하부구조를 지탱한 부재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혜소국사란 인물과의 관계는 의미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용문사에 윤대장을 조성한 조응은 혜소의 법손에 해당한다. 조응은 혜소의 제자인 영보선사에게 출가하여 승계의 최고인 대선사에 올랐다. 14세에 출가하여 1125년 승과에 급제하고 일곱 사원의 주지를 지냈으며, 1153년에 삼중대사가 되고 1169년에는 선사가 되었으며 1170년 대선사가 되었다.⁵⁶⁾

이와 같은 그의 이력과 사상계보, 그리고 윤대장을 조성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조응이 지녔던 造營思想의 연원을 혜소에게 연결시키기

54)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七日法...”, 『龍門寺重修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한기문은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음기의 소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92~93쪽에서 「중수용문사기」에 언급된 1173년 國朝多亂에 관해 이 해에 동북면 병마사 金甫當이 鄭仲夫, 李義方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위시키시려고 군사를 발동한 것이라 하고, 1174년에도 서경유수 趙位龍이 군사를 발동하여 동북 양계의 고을에 격문을 보내 쫓아낼 것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명종의 지위를 흔드는 일이었다고 보았다. 조응이 용문사에서 僧齋를 설치한 것은 명종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불교계의 지원 성격이 크다고 보면서 조응으로 대표되는 혜소국사의 선택을 이은 선종계는 명종과 친연성이 컸다는 것이다.

55) 한기문,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84~85쪽.

56) 정병삼, 「예천 명찰 용문사의 역사」, 『용문사』, 2006, 304쪽.

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용문사중수기」에는 이를 보완해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조응은 1161년(의종 15) 대홍사를 중수하고 叢林會를 열어 혜소국사가 入唐(入宋)의 오기로 판단하여 전래한 좌선할 때의 儀軌와 발우를 놓는 법[坐禪儀軌排鉢]으로써 낙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坐禪儀軌’는 좌선에 관한 행례와 법식을 말하고, ‘排鉢’은 鉢位를 정하고 粥飯에 임하는 등 총림에서 시행되는 제반 행례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知訥(1158~1210)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청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은 혜소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혜소국사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입승한 전력이 있다. 의천보다 앞서 유학한 시기, 의천과의 동행, 그리고 예종의 명을 받아 遼나라에서 만든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 이 중에서 언제 청규를 도입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세 번째 행보 즉 예종의 명으로 건너간 때로 추정된다. 宗蹟이 『禪院清規』를 찬술한 때는 1103년(송녕 2)이었고, 그로부터 8년 후에 다시 교정하고 정비하여 재간행한 『重添足本禪院清規』는 1111년(가태 2)이었으므로 최소한 1103년 이후라야 가능하다. 그가 요본 『대장경』 3부를 사가지고 온 것은 예종의 명을 받았으므로 1106년(예종 1) 이후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때는 이미 종색의 『선원청규』가 시행되었을 때였다. 이때 도입된 청규는 그의 문손들에게 적용되어 시행이 되었고, 나중에는 지날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⁷⁾

『선원청규』는 승단의 규율과 선종사원의 생활과 규칙을 담고 있지만 이런 생활과 규칙

은 곧 당시 건축공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원청규』에는 藏殿이라는 경장건축의 명칭이 등장한다. 이는 經藏 공간과 看經堂 공간으로 이루어진 堂宇를 말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경장과 간경당을 각각의 건물로 보고 있다. 경장은 『대장경』을 수장하는 곳으로 거기에는 聖像을 안치하고, 殿主(藏殿主)가 관리하는 곳이며, 간경당은 几案을 배설하고 여기에서 衆僧이 經卷을 열람하는 곳으로 간경당 수좌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경장을 관리하는 殿主와 간경당을 관리하는 간경당수좌는 藏主의 아랫사람이어서 장주는 경장과 간경당 전체를 통할하였다. 또한 경장과 간경당은 각각 별개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장전 건물 내에서 分局을 이룬 것인데 이는 오늘날 도서관의 서고와 열람실로 나뉜 공간구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⁸⁾

이처럼 청규는 해당 시기 선종의 가람구성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종사원과 청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편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며 선종사원의 필수요소였던 전륜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에 걸친 渡宋 경험을 통해 혜소국사는 北宋의 寺院에서 다투어 건립하기 시작한 전륜장을 어떻게든 실견하였을 것이다. 전륜장의 어떤 면을 그가 주목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으나 그는 이것을 고려로 도입하였고, 이후 그의 문도와 법맥으로 이어졌다. 전륜장뿐만 아니라 『선원청규』까지 법손 조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혜소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조응까지 자연스럽게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57) 정재일(寂滅), 『慈覺宗蹟의 禪院清規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321~326쪽.

58) 鏡島元隆 외, 『역주선원청규』, 조동종종무청, 昭和47년(1972), 13쪽.

4-2. 兩輪 조성의 의미

중국의 자료를 보면 五輪藏 다시 말해 5좌의 윤장을 나란히 두었다는 기록도 있고, 다수의 윤장을 설치하는데서 변화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티벳의 마니차까지 있으므로 용문사의 兩輪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용문사 양륜이 유일하다면 문제로 삼을 이유도 없지만 이보다 12년쯤 뒤에 직지사 대장당에 양륜을 두었다는 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수용태도라 할 수 있다.

직지사에 대장당을 짓고 윤장을 둔 저간의 사정은 「直指寺大藏堂記碑」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비석은 전하지 않으나 비문을 탁본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 아쉽게도 결락된 부분이 많아 대략의 윤곽만 파악 가능하다. 현존 내용으로 볼 때 1185년(명종 15) 무렵 승려 玄默이 발원하여 『대장경』을 완성하고 나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 직지사에 대장당을 짓고 경전을 안치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나전 혹은 주철, 혹은 금철을 해서 장식을 달리한 경함을 제작하여 이를 藏에 안치하였다. 일부 결락된 글자가 있기는 하나 “兩輪以藏經五千四十八卷…飾金而粧募人寫經…”이란 내용은 첫째, 양륜 즉 두 개의 윤장으로써 5,048권을 두었고, 둘째, 금으로 장식하고 사람들을 모아 경전을 베끼게 하였다는 두 내용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앞의 양륜을 기존 해석에서는 두 수레로 풀이하였으나 수레에 경전을 모신 예는 알 길이 없고 보통 경전 안치와 연관할 때 ‘輪’이란 글자는 윤장을 가리키고 있어 양륜은 2좌의 윤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두 개의 윤장에는 경전 5,048권을 넣었다고 하므로 각각 2,524권씩 나눠 넣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당히 큰 규모의 윤장이었을 것이다.⁵⁹⁾

59) 「直指寺大藏堂記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비석의 건립 연대를 『대동금석서』와 「조선

직지사 역시 용문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사원을 지원하고 이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던 명종과도 연관이 있는데 林濡는 明宗을 위한 축성보를 설치하였다.⁶⁰⁾ 여러 면에서 용문사와 직지사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12세기 전륜장 가운데 문수원 전경대는 단독인지 多輪인지 불확실하나 송대의 전륜장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둘 때 단독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지륜사(영국사)의 전륜장은 전각 내부 중앙에 단독 자리한 형태였다. 혜음사지는 건물지 형태로 볼 때 양륜을 두었을 것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양륜의 전통은 전륜장 도입 초반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양륜 조성은 장방형 전각 내부에 적합하다. 용문사 대장전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정면 3칸인 대장전 내부는 어칸에 존상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윤장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륜장전 평면은 정방형에 가깝고 내부 중앙에 전륜장을 배치하는 예와는 대조를 이룬다. 용문사와 직지사처럼 양륜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우나 단륜에서 양륜으로의 변화는 분명한 듯하다. 무신집권기란 시대특성의 반영일지, 장방형 평면변화에 부합한 것일지 확실하지 않으나 전륜장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하고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금석총람』에서 모두 1185년(명종 15)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문 내용 중에는 1190년(명종 20)에 있었던 일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대장경』 시납과 대장당 건립시기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金山直指寺事蹟』에 고려 때 전각 목록을 수록하면서 “海藏殿二層五間”, “輪藏殿三間”이라고 하여 당시에 해장전이란 전각과 윤장전(윤장을 시설한 대장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적고 있어 두 전각의 차이도 향후 규명할 필요가 있다.

60) 한기문,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음기의 소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84쪽.

5. 맺음말

대장전 내부의 서가방식 가운데 회전식 서가인 전륜장은 북송에서도 시작하는 신경향이었지만 고려중기에 이미 여러 곳에 전륜장을 시설하였던 자취를 확인하였다. 어떤 경로와 매개자를 통해 고려로 도입되었을까하는 의문은 혜소국사란 승려에게서 찾은 단서로서 풀어낼 수 있었다.

이자현의 居士禪과 혜소-조응으로 이어지는 사상특징은 이미 불교사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들 사이에는 불교건축의 요소인 전륜장 건립이란 또 다른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륜장 관련 사료와 건물지는 모두 혜소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현은 문수원에 전경대를 시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예종 때 신창한 파주 혜음사지에는 전륜장 축기둥 초석으로 사용되었을 십자형 석재가 발견되었고, 혜소국사의 제자 광지 대선사 지인은 쌍봉사와 지륜사 두 사찰에 전륜대장을 건립하였다는 기문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혜소의 법손인 조응대선사는 예천 용문사에 양륜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사상계보를 혜소로 언급하고 있어 조응이 용문사에 실천한 조영사상의 연원도 혜소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려중기 전륜장의 도입에는 혜소국사가 확고하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그의 문도와 법맥을 통해 전륜장 조성의 전통을 이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혜소가 유일하게 전륜장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와 함께 입송한 의천 역시 도입자일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밖에도 입송 유학하였던 여러 승려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고려중기 전륜장의 유적과 사료가 혜소 법맥 위주로 확인되고 있어 혜소를 전륜장 도입의 주도적 역할을

한 승려로 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중국 전륜장을 연구한 결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송대 윤장을 건립한 사원 가운데 열의 아홉은 선찰이란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혜소국사와 고려중기 선종사의 전개상과 더불어 그의 법맥에서 전륜장을 특별히 조성한 경향은 고려시대 선종사원의 특성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밝히지 못하였지만 윤장=선종이란 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 비중 있는 근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혜소의 또 다른 기여는 바로 『선원청규』의 도입에 있다.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한대로 청규가 선원의 생활규약인 만큼 선원의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전륜장의 도입 역시 단순한 북송 신경향 도입 차원을 넘어서 『선원청규』란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廣智大禪師之印墓誌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2. 「靈通寺大覺國師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3. 「龍門寺重修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4. 「直指寺大藏堂記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5. 「杭州高麗慧因寺土地喜捨記」, 한국금석문 종합정보영상시스템
6. 『高麗史』, 서울시스템주식회사
7. 『대각국사문집』 5 ; 『한국불교전서』 4
8. 『三國遺事』
9. 『宣和奉使高麗圖經』, 한국고전번역원 고

- 전국역총서 사이트
10.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 사이트
 11. 『태종실록』,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 사이트
 12. 강원문화재연구소, 『청평사 강선루·회전문 부분 보수공사에 따른 유구확인조사 약보고서』, 2001
 13. 鏡島元隆 외, 『역주선원청규』, 조동종중 무청, 昭和 47년(1972)
 14. 광대항 주편, 『중국고대건축사(3)』 송·요·금·서하건축,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3
 15. 김부식, 「혜음사신창기」, 『동문선』
 16. 김부철, 「淸平山文殊院記」, 『동문선』
 17.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4
 18.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과주시, 「과주 혜음원지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4
 19. 박용진, 「대각국사 의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4
 20. 소학관, 『동양미술대전집 5』, 五代·北宋·遼·西夏, 2002
 21.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22. 이덕무, 『靑莊館全書』
 23.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혜안, 2002
 24. 李齊賢,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東文選』
 25. 張十慶, 『中國江南禪宗寺院建築』, 호북교육출판사, 2002
 26. 張勇, 『傅大士研究』, 巴蜀書社出版發行(成都), 2000
 27. 張維, 「和淸陰遊淸平錄」, 『溪谷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 사이트
 28. 전영준, 「고려 예종대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 『진단학보』 97, 2004
 29. 정병삼, 「예천 명찰 용문사의 역사」, 『용문사』, 2006
 30. 정수아, 「高麗中期 對宋外交의 再開와 그 意義」,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31. 정수아, 「고려중기 개혁정치와 北宋新法의 수용」,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32. 정재일(寂滅), 『慈覺宗蹟의 禪院淸規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선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05
 33. 조선총독부, 『朝鮮寺刹史料』, 1907
 34. 竹島卓一, 『營造法式의 研究(二)』, 중앙공론미술출판(일본), 1941
 35. 최영숙, 「예천 용문사 윤장대」, 『용문사』, 2006
 36. 충청대학박물관, 「영동 영국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3
 37. 한기문,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2005
 38.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3
 39. 홍성익, 「춘천 청평사 가람배치의 종합적 검토」, 『강원사학』 19·20, 2004
 40. 홍성익,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 복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41. 黃敏枝, 「再論宋代寺院의 轉輪藏(上·下)」, 『청화학보』 26, 臺灣, 1996
 42. 黃敏枝, 「觀于於宋代寺院의 轉輪藏」, 『普門學報』 8, 臺灣, 2002

The Interchange with the Northern Song and the Introduction of Jeonryunjang by Haejokuksa in the Early Koryo Dynasty

Lee, Kyung-Mee

(Committee Member of Cultural Heritage in Seou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tudying on the medium of cultural interchange regarding who did and how to introduced the new trend of architecture during the period of Koryo Dynasty.

Before the era of Koryo Dynasty, Kyungjang(Sutra Pitaka, 經藏) was mainly centered in Kyeongnu with a substantial function of storage. In the early Koryo Dynasty, however, Daejangjeon(大藏殿), which was spatialized for worship, began to appear. Normally, fixed walls were installed and the Sutras were enshrined inside Daejangjeon, while Jeonryunjang (revolving wheel sutras), a type of rational bookshelf, was introduced, and a new trend became developed in Kyungjang construction.

Jeonryunjang(revolving wheel sutras, 轉輪藏) is a dharma instrument with a rotational function so that one revolution gives an effect of reading the enshrined Sutra one time, and began to be created actively in the period of the Northern Song.

It is considered that the introduction of Jeonryunjang(revolving wheel sutras) to Daejangjeon was resulted from Haejokuksa(慧照國師) Damjin(曇眞) who visited the Kangnam areas in the Northern Song at that time. The Kangeol areas in the Northern Song, where Damjin concentratively itinerated three times, were the place in which Jeonryunjang was created in many temples.

Since Damjin, historical materials and excavated data regarding constructing Jeonryunjang have been discovered in the Buddhist temples, which are related to his pupils and dharma lineage. The only existing Jeonryunjang of Yongmusa Temple in Korea is the one that Joeung Daesunsa, who succeeded to the dharma lineage of Haesokuksa, promoted, and supports strongly such introduction of Jeonryunjang by Haesokuksa

Keywords : Faith in Buddha's Message, Jeonryunjang, Haesokuksa, Buddhism Architecture (Construction), Interchange with the Northern Song
